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검정고시부터 사법시험에 이르기까지”



조 재 혁

- 1988년 2월 생
- 검정고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04)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가장 먼저, 수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1 때 자퇴하고, 고입검정고시부터, 고졸검정고시를 거쳐 사법시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고시와 어려운 고시를 본 유별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야 쉽다하지, 그때 아주머니들과 함께 검정고시 볼 땐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검정고시 준비 중 아빠가 돌아가신, 중·고등학교 친구들 없이 외롭게 공부를 했던, 수능 삼수를 하여 17살 나이에 겨우 대학교에 들어갔던, 사시1차를 힘겹게 합격하는 등 크고 작은 아픔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그토록 꿈꾸던 연수원에 와서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합격수기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 하여금 단 한분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더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 II. 사법시험 제1차(4번만에 합격)

책은 헌법은 금동흙, 형법은 형법요론, 민법은 핵지총과 각 기출문제집을 보았습니다. 허나 다들 아시다시피, 책의 선택여부로 인해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책을 선택해서, 많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늘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진도가 예전과 같다면 지금쯤이면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책만 보면서하는 공부를 싫어하고, 문제를 접하면서 공부하는 스타

일이어서 진도별모의고사를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합격확률이, 진도를 한다고 올라가고, 하지 않는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도를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도를 하시더라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겠고, 진도를 안하신다면 기출을 많이 풀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출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 III. 사법시험 2차(재시험격)

#### 1. 7법 기본서 및 저의 공부방법

##### (1) 헌법

헌법은 김유향 300을 기본서로하고, 정희철 사례연습과 김유향 모의고사를 보조교재로 삼았습니다. 정희철 사례연습엔 있지만 300엔 없는 논점인데 중요하다 생각되면, 포스트일 한 장에 정리하여 300에 끼워넣는 등 최대한 300에 단권화 했습니다. 두 번정도, 2주 정도 잡고 300중에서 중요한 논점을 골라 하루에 10개씩 써보기도 했습니다. 답안지에 주제 10개를 쓰고 한 주제당 5~6줄 정도씩 써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답안에 현출이 되는지 확인이 되는 동시에 분량조절 연습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특히 사안포섭이 중요합니다. 사안포섭은 연습과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센스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정희철 사례연습을 많이 참고했

습니다. 사례에서 특히 포섭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다보면 그 중에 외워야 할 것 같은 주옥같은 문구들이 보입니다. 길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0 중 해당하는 논점에 가필해서 '나중에 포섭할 때 이런 말들을 꼭 써서 포섭하자' 라고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정희철 저를 보신다면 사례 안에 있는 목차와 핵심포인트(맞나요? 목차 아래있는 네모박스)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부분만 복사해서 마무리 할 때 아침 먹을때나 수시로 봤는데, 헌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추!

##### (2) 행정법

행정법은 정선균 엑기스를 기본서로 하고, 경희대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을 봤습니다.

전 워크북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약조절하면서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책에 있으면 다 봐야했기 때문에 워크북을 보는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2순환부터는 엑기스에는 없는 내용은 버리자는 생각으로 엑기스를 잡은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1,2,3순환 모의고사로 극복하기로 하고, 모의고사도 엑기스와 맞먹는 비중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선균 엑기스와 호환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체계와 서술, 검토가 굉장히 비슷해서 사례집을 따로 보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냥 사례 풀고 목차만 맞춰보기만 하면 충분했고, 사례집의 내용을 따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엑기스를 보신다

면 위 사례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상법

상법은 김혁봉 상법신강을 봤습니다. 전 김혁봉 사례집도 샀고, 황의영 사례집도사긴 샀었는데, 상법신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도 1,2순환 다 따라갔고, 저 때는 3순환 때 김혁봉 강사님이 모의고사를 안 해서 그랬었나, 황의영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상법은 모의고사도 큰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법신강을 보기 때문에 상법신강에 없는 부분은 다 뭉뚱하게 생각하고 그 책만 열심히 봤습니다.

마무리 때, 상법신강 목차를 찢어, 각 목차에 있는 세부목차나 학설이름, 키워드 등을 필기하면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리된 목차노트를 틈틈이 보면서 상법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방법입니다.

### (4) 민사소송법

민소법은 김경환 암기장(노란색으로 된 조그만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해부터인가 좀 커진 것 같더라고요.)을 기본서로 하고, 이창한 사례집, 모의고사를 보조로 봤습니다.

예비, 1순환은 통합을 봤고, 2순환인가 3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김경환 암기장을 주축으로 공부했습니다. 김경환 암기장과 통합은 기본적으로 이시윤 교수님의 목차를 따르기 때문에 편제가 비슷해서, 책을 바꾸는데 무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약조절을 잘 못하는데, 통합은 판례를 많이 실은 것이 장점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김경환 암기장에

있는 것만이라도 다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갈아뒀습니다. 암기장을 선택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암기장을 그대로 외워쓰는 연습을 많이했습니다.

암기장은 한 눈에 목차가 다 들어와서,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5) 형법

형법은 이재철 암기장(파란 책)을 기본서로 하고, 이재상 신경향, 이재상 모의고사를 보조로 삼아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철 암기장에 있는 논점은 신경향에서 다 지웠고, 어떤 논점에 대해서 두 책의 검토가 다르다면 내가 쓰기 쉬운 검토를 취하면서 정리해가니, 나중에는 암기장만 보고, 신경향은 목차만 스킵하면서 지나가도 되어서, 두 권을 같이 보는데 부담이 적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판례의 중요성이 다른 법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때는,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학설대립은 두, 세줄 정도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판례를 많이 쓰고 그에 대한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피고인이 어떤 죄가 되는 논거를 물을 때는, 위와는 달리 학설의 논거를 많이 써주어 학설대립을 좀 더 부각시키고 판례는 어떤 논거로 어떤 입장인지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처음에는 신이철 사례단문을 기본으로 보다가, 2순환 이후부터는 신이철 모의고사를 기본서로 하고, 신이철 선생님이 정리한 이재상 교수님

사례집을 부교재로 삼았습니다. 형소법은 조문(규칙포함)만 잘 알아도 7~80%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문을 항상 끼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 전문법칙 공부할 때, 증거파트의 꽃이라고 해서 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좀만 이해하고 연습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므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7) 민법

드디어 민법이네요. 민법은 교안을 주교재로 하고, 박승수 사례연습(이하 귀요미)를 부교재로 삼았습니다. 교안에 민법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보이는 것이 많은 책입니다. 처음엔 읽기 힘들어도 인내를 갖고, 한줄한줄, 꼼꼼히 뜯어 본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법은 매 순환 때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한, 두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30페이지씩 교안을 보기도 했고, 귀요미에 있는 중요사례를 골라 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귀요미를 볼 때는 사례 하나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 시간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점심먹고 스터디하는 형과 귀요미에 있는 사례를 하나 풀면서 그 사례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굉장히 깊게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를 서로 잡아보고 다른 점이 있으면, 왜 우리가 다르게 썼는지 서로 물어봤고, 추가로 쓴 논점이 있다면 무슨 생각으로 쓰게 되었는지, 빠뜨린 논점이 있었으면 왜 빠뜨렸는지 하나 하나 다 체크하려고 했고, 사안에서 날

짜가 이렇게 바뀌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甲이 A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B라고 말했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사례를 깊게 이해하려고 했고, 스터디 하는 형과 견해가 다르면 많이 토의하고 책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전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끝이 없습니다. 연수원와서도 해매는 것이 민법입니다. 지금은 후사법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 민법과 형법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꼭 민법은 매일매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법과 같이, 민법도 판례가 중요한 것이지, 학설대립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학설대립은 쓰지 않아도 되고, 쓴다면 길어야 3~4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2. 기타 공부방법

### (1) 공부방법 연구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방법, 즉 스킬적인 면에서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충 8:2정도로 공부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안지의 인상이 좋을지, 지금 이 공부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 공부내용 말고, 스킬적인 면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한 2차생이라면 실력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꽤 많은 시간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 (2) 답안지 인상

내가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 다음의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갑의 죄책이 무엇인가’ 면, 답안의 마지막은 ‘결국, 갑은 무슨 죄다’라고 대답을 했고, 질문이 ‘갑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면, ‘따라서, 갑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글씨입니다. 명필일 필요는 없으나, 글씨의 크기가 일정하고, 글씨의 이미지가 일정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Keyword와 ‘있다, 없다’ 는 끝지막하고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차입니다. 이 수기에서는 1. 가. 1) 가)....의 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의 목차입니다. 채점은 아무래도 판사, 검사, 교수님 들께서 하시는 만큼 그들에게 익숙한 목차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에 이런 목차를 썼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나, 위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왕이면 채점위원들에게 보기 좋게 쓰자는 생각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3)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보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에 투자되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지만,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실력

을 항상 점검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 실력을 내가 숨기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출제위원급 교수모의고사를 지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출제하고, 채점해준다는 것은, 학원모의고사 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자기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문제가 학원과 달라서 이상한 것 같다는 이유로 교수출제 모의고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4) 진도 및 마무리

저는 4-2-1을 했고, 4는 역순, 2는 선순, 1은 역순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진도에 맞춰서는 4-2-1을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도에 상관없이 학원스케줄대로 모의고사는 풀되, 진도는 전적으로 제가 계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2-1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도, 공부계획을 너무 학원에 매달리지 마시고, 본인에게 최적화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고민 하시면 좋겠습니다.

#### IV. 컨디션(가장 중요)

저는 컨디션 조절이 제일, 킹왕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차를 세 번 내리 떨어졌을 때는, 컨디션 관리를 정말 안했습니다. 그 세 번 모두, 1차 시험 막바지 때 새벽

5~6시자고, 정오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컨디션 조절한답시고 시험 3~4일 전에 생활리듬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물론 시험 볼 때는 긴장감에 잠은 오지 않았습디만, 머리가 잘 안돌아가더군요.

그 세 번의 실패 후에 깨달은 것은 “컨디션조절“이었습니다. 합격한 해에는, 한달 전부터는 11~12시가 되면 잠을 자고 7~8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졸리면 잘 자주고, 맛있는 음식 잘 먹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리하게 하루에 2~3시간 더 공부하려다 자칫 2~3일 아파버리면, 그것이 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근처에는 절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디다. 혹시 밤을 샌다든지, 잠을 줄인다든지, 과식한다든지, 끼니를 거른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등 몸에 해가 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디다. 특히 시험 전날에는 절대 욕심부리지 않았고, 어차피 지금 봐도 모르는 것은 가서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컨디션관리는 2차 땀 더 철저히하게 했습니다. 저는 좀만 졸려도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졸리면 그냥 옆드려 잤습디다. 같이 공부한 분들은 ‘깨는 저렇게 자면서 언제 공부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억지로 깨어있어도 공부는 되지 않고 시간낭비인 것 같아, 자주 잠을 잤고, 자고 일어나서 버거 썩썩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에게 정말 컨디션이 중요했기 때문

에, 심지어 사시2차 시험장가서도 시험 전에 책을 거의 보지 않고 잠을 잤습디다. 첫날에는 시험 전에 책을 보긴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 결국 1년 동안 해놓은 공부로 풀게 되었고, 방금 전에 본 것은 사실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을 느꼈습디다. 문제의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뇌를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시험 전에 계속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진 않았지만,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잠이 안와도 계속 눈감고 옆드려 있었습디다.

각자 자기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잘 찾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 V. 종교생활 (비종교인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전 기독교인입니다. 수험생이시고, 종교가 있으신 분, 특히 기독교인이시라면 종교생활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기 쉽습디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편입니다. 2차 수험기간 때만 말씀드리자면, 매일 QT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대종교통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드림을 치며 헌신을 했고, 청년부에배까지 드리고 오면 오후 6~7시가 되기 마련이었고, 그러면 주일은 녹초가 돼서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게 돼서 시험까지 계속 찬양인도를 하였습니다.

전 말은 사명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전 떨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 공부시간이 부족해 떨어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고, 스스로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로 고민하시는 분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포기하기마시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VI. 감사인사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제가 13살 고시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뿐인 우리 엄마, 신미경님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아빠, 재만, 친구 및 외가댁, 강지성형, 서인걸 교수님, 황남석 교수님, 고시부 지은누나, 종민형, 승재형, 성현형, 충기형, 경중형, 침삭해주신 병주형, 항상 기도해 준 수현형, 매일 깨워주던 명관이형, 정신적

으로 도움을 준 홍주형, 재훈형, 송영만 목사님, 정다운, 배용기 전도사님, 청년부, 부족한 저를 잘 따라준 찬양팀 멤버집사님들 및 교회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최의호 교수님, 손진홍 교수님, 박재현 교수님, 43기10반, 특히 사랑하는 B조 재욱이형, 정수형, 태경이형, 병찬이형, 택이형, 현수형, 병희형, 범석이형, 동주형, 재훈이형, 영우, 준열이, 먼구, 영은누나, 혜원누나, 은영누나, 주현누나, 양순누나, 현정이, 선경이, 막내민지와 경희대학교 43기 동문, 신우회 및 찬양팀 지체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아빠, 그리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 VII. 맺으며

얼마 전에 올림피아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뼈대대는 듯했고, 오심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높은 종합순위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수험생활이 맘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신다면 결국에는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